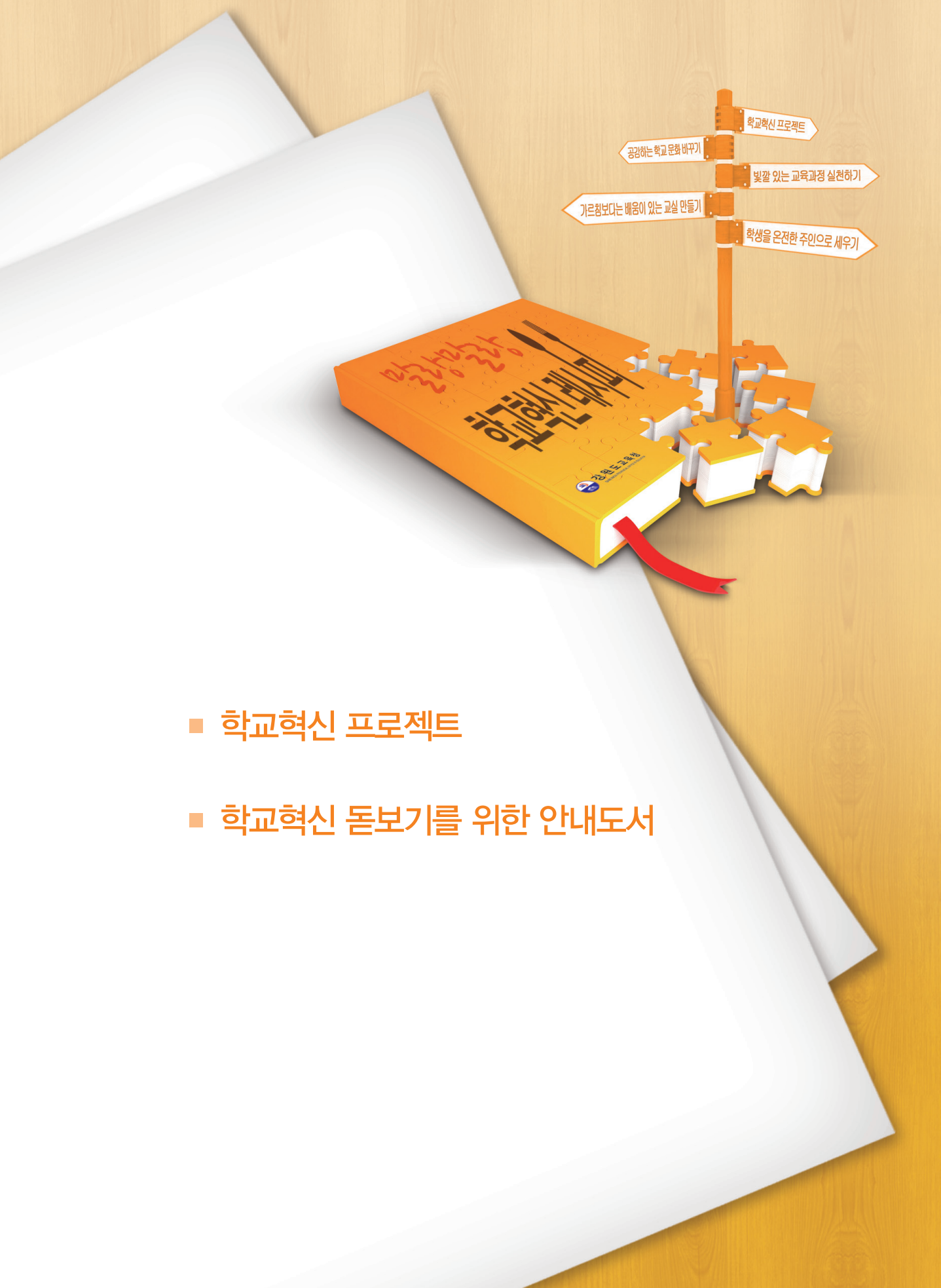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www.gwe.go.kr





- 학교혁신 프로젝트
- 학교혁신 돋보기를 위한 안내도서

1 학교문화

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구축

1) 새로운 학교문화의 창조

- 버려야 할 낡은 학교문화
 - 학생과 교사를 지시, 통제, 관리, 감시의 대상으로 보는 전근대적 학교문화
 - 성적 위주로 서열화된 학교와 학생
- 혁신 · 창조해야 할 학교문화
 - 지시 · 통제에서 민주적 참여 · 자치 문화로
 - 성적 위주에서 미래능력을 키우는 성장 · 발달 과정으로
 - 지식위주에서 창의적 인성, 생태적 감성, 예술적 표현능력 중심으로

2) 교사중심의 수업문화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

- 학생중심의 수업문화로 전환
- 교사들 스스로 서로 참여 · 협력하는 집단지성의 일원으로서 평생학습체제를 갖추고 지속적 인 참여 · 협력학습 수행

3) 교사들의 집단지성 문화 형성을 위한 근무 여건 마련

- 교사들의 참여 ·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인사제도의 운영
 - 수평적인 권한 위임체제 도입
 - 교사회의와 인사자문위원회로 권한위임
 -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 협력을 통한 자치활동 보장
- 교사 존중의 문화 조성
 -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와 존중
 - 수업 및 학생의 성장 · 발달 과정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의 업무체계 도입
 -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수 · 학습 방법의 개발 및 적용 등 교사의 자율적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4) 학생중심의 학교문화 형성

- 학생에게 학교를 맞춰나가는 학교문화
 - 학교를 학생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재구조화
- 학생생활협약을 통한 학생자치 생활문화 형성
 - 학교, 학생, 학부모가 함께 만드는 ‘학생생활협약’ 체결
- 학생인권의 보장
 - 학교공동체 구성원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인권협약’ 체결

나. 학생 성장·발달 책임제 구축

1) 개인별 성장·발달 프로그램 운영

- 학생이 ‘개인 발달 계획’에서 설정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자기평가를 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참여·협력 내용도 기록

2) 성장·발달과정을 중심으로 한 평가체제 도입

- 획일적인 일제고사형 지필평가 방식 탈피
 - 학교내 평가방식 다양화 T/F 구성
- 창의성 및 종합적 사고력 중심 평가 체제로의 전환
- 결과가 아니라 과정·주제·활동 중심의 수행평가 내실화
 - 학생이 작성한 각종 보고서와 활동내용을 포트폴리오로 관리
- 교사의 자율적 평가권 보장

다. 학부모·지역사회와의 활발한 협력

1) 학부모의 자율적인 참여·협력 체제 구축

- 학부모를 동원대상이나 수동적 참여자로 간주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의 동반자로 적극적인 참여·협력관계 형성

2) 지역 교육문화공동체의 형성

아이를 한명 키우는 데 마을 하나가 온전히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은 곧 삶이다. 학교는 가정, 길거리, 이웃과 마찬가지로 삶터다.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모두가 삶의 바탕이 된다. 삶터로서의 학교는 학부모와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 참여하게 될 때, 학교는 종합적인 생활문화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학교는 생활문화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열린 공간이 되어야 한다.



가. 배움 중심의 수업 모형 개발 및 운영

1) 학생 활동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연수 강화

- 새로운 수업 모형에 대한 교사 연수
 - 일제식·강의식 교수·학습 모형의 극복
 - 학생 중심의 상호 배움의 촉진을 위한 수업 모형으로의 전환
 - ‘주제 – 탐구 – 표현’의 교수·학습 모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수
 - 단일교과를 뛰어넘는 주제 중심의 통합교과적 탐구 또는 프로젝트 수업으로 창의적 학습 성과를 얻어내는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 및 연수

2) 학생 중심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과 적용

- 학생 활동 중심으로 소통에 기반한 상호작용과 협력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모형
- 학생들 사이의 소통을 통한 배움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협동 학습, 배움의 공동체 수업, 프레 네 학교의 수업 모형 등의 적용
-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교수·학습의 실현
 -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 배움에 초점을 맞춘 수업을 위한 모둠 편성

나. 교사의 협력과 소통에 기초한 수업 연구 활성화

1)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하는 수업 연구

- 교과내, 교과간 소통을 통한 수업 연구·혁신 강화
 - 교과협의회나 교과 부서에서의 새로운 수업모형의 설계와 적용
- 행정 일변도에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학교조직으로 전환
 -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의제 중심

2) 공개 수업과 연계된 수업연구회 운영

- 공개 수업 연구의 혁신
 - 교원 평가에 연계된 공개 수업 운영의 지양
 - 교사의 공개 수업 참관 권장과 공개 수업에 대한 토론 활성화
- 수업평가 방식의 혁신
 - 교사의 '교수'에 초점을 두거나 교원평가와 연계한 수업평가의 지양
 - 학생들의 참여와 배움에 초점을 둔 수업평가로 전환

3) 수업 공개 및 참여의 활성화

- 교과목 간 수업 공개
- 주 1회 전교사 공개 수업 참여와 수업연구회 실시
 - 주 1회 전체 교사들이 참여하는 수업 공개[예) 강원행복+학교]
 - 전 교직원이 공개 수업에 참여하여 모둠별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연구

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기초교육 강화

1) 기초 학습력 확보

- 사회·과학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 교과에서도 경쟁 중심의 수준별 수업 지양
- 이질 학급 편성을 통한 학생 상호간 배움의 관계 창출

2) 학습부진아 특별지도

- 학업부진아에 대한 개별적 상담과 문제 진단
- 심리·특수교육 전문가의 조력

3) 학생 상호간의 배움을 촉진하는 학급 편성

- 학생 상호간에 배움의 관계가 창출될 수 있는 조건 마련
- 학생들 사이의 자매 결연 방식의 또래 배움의 관계 형성

3 교육과정

가. 꿈을 실현하는 교육과정 운영

1) 진로탐색 교과활동 강화

- 모든 교과별협의회에서 진로 탐색 관련 단위 추출과 교수·학습 계획 수립
- 진로탐색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운영
 - 각 교과별 진로 관련 단원을 추출·융합하여 진로탐색 프로젝트 운영 계획 마련

2) 공동체·시민 교육 강화

- 교과별 학습 속에서 공동체·시민 교육 실현
 - 교과별로 협력·모둠·프로젝트 학습 등 공동체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배양
-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의 주제학습을 통해 공동체·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탐구·조사·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실제 문제해결에 적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공동체·시민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생태·인권·평화 교육 강화

- 통합교과적인 생태·인권·평화 교육 실현
 - 교과별로 생태·인권·평화 교육 관련 단원을 추출하여 교과간 협의를 통해 학습 과제와 영역을 정해 통합교과적 교육 프로그램 마련

통합교과적 교육 프로그램의 예

국어 교과의 생태·인권·평화 관련 단원에서 가치교육과 관련된 읽기자료의 독서 방안과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학과에서는 통계 단원에서 생태·인권·평화 관련 통계 자료의 분석과 통계 처리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며, 예술 과목에서는 관련된 작품의 감상과 창작 활동 등의 수행으로 여러 교과가 연계된 통합교과적 학습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

-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의 주제학습을 통해 생태·인권·평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생태·인권·평화 관련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지역사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 생태·인권·평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 지식을 측정하는 지필고사를 최소화하고, 감수성과 친화력을 기르는 활동 중심의 실기와 체험 중심의 평가 시행
- 문화·예술·체육 교과의 교육과정과 동아리 운영의 결과는 체육대회나 축제(예술제)로 총화

나. 참여와 협력학습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1) 협력학습 교육과정 운영

- 강의 중심에서 학생들의 협력학습 위주로 교육과정 재구조화
- 배움의 공동체 교육, 탐구학습, 프로젝트학습, 토론학습, 협동학습 등 학생들의 참여와 모둠 활동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

2) 체험중심 교육과정 운영

- 각 교과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교과별 체험 학습 프로그램 포함
- 학급별 소규모 집단별 주제와 테마 중심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학교 전체 단위의 수련회, 수학여행, 소풍 등은 지양
 - 위탁 운영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
- 생태·환경·농어촌·텃밭가꾸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체험 학습 강화

3) 탐구·프로젝트 학습 교육과정 운영

- 탐구·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 교육과정 운영
- 도서관, 컴퓨터실, 다목적 교실 등 탐구·프로젝트 학습 공간과 시설, 교육지원 체제 마련
- 통합 교과 탐구·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 운영

4) 과정·다면적 능력 중심 평가 시행

- 학습 활동 과정과 실기, 체험, 보고서 등을 통해 다면적 능력 평가
- 객관식 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지필고사 중심의 평가 체제 지양
- 정기고사는 탄력적으로 실시하고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비중 상향
-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학생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를 종합하여 기말 성적에 반영

다.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과정 운영

1) 소외가 없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엘리트 중심의 교과교육 탈피
- 기초학력 중심의 교과 수업 운영
 - 기초학력 미달자와 위기 학생도 참여하는 협력학습과 같은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예술·체육 교과에서 재능이나 의지 부족 학생을 위한 보완 프로그램 운영

2) 미래의 삶과 연결된 다양한 선택 교과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과 선택 교과과정의 시수를 최대한 확보하여 학교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 학생들의 미래의 삶과 연계된 교과의 개설
 -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컴퓨터·정보화 관련 교과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생태·환경·생명공학 관련 교과
 - 학생들의 생활상 요구에 부응하는 진로 관련 교과

3) 특기적성·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방과후 학교 운영

- 특기적성·문화·예술·체육 중심의 방과후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국어·영어·수학 교과는 기초학력 미달자에 대한 학습장애 보완·치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방과후 학교의 강사와 지도교사는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전문인력 활용

4) 동아리 및 학생자치 활동 강화

-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
 - 학급회의, 학생회의를 정례화하고 실질적 운영으로 학생 참여 극대화 유도
 - 학생들이 자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결정·실행할 수 있도록 회의 주제를 설정해 주거나 스스로 찾도록 지도·지원
 - 학생회가 축제, 체육대회, 행사 등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주도하도록 권한과 책임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육과정 편성과 규칙 제정 등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에 의견 개진
-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지원
 - 교과, 특기적성, 예술, 문화, 취미, 체육 등 다양한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
 - 동아리 활동의 지도·지원에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과 네트워크 활용

4
돌봄

가. 효과적인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운영

1) 돌봄 문화를 통한 청소년 소외의 극복

-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돌봄의 공동체로서의 학교
- 교실붕괴와 청소년 소외의 심각성
 -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청소년 소외
 - 집단화 · 서열화된 청소년 폭력문화
- 공감능력의 회복과 돌봄문화
 - 소외된 학생들의 치유와 성장 · 발달을 위한 공감 프로그램의 필요성

최근 심리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탈, 반항, 무기력, 폭력, ADHD 등을 포함한 청소년 소외현상의 대부분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배제, 분리됨으로써 공감능력이 억압되어 발생하고, 정서적으로 잘 통하지 못하면 학습능력의 저하는 물론이고 두뇌발달도 지체되거나 다양한 결함을 드러낸다고 한다. 이는 소외된 학생들의 치유와 성장 · 발달에 ‘공감의 뿌리’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공감은 주입 · 훈계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사이에서 발생한다. 교사가 학생에게 교감하려 노력하고, 학생은 그가 체험한 상호관계를 통해 공감능력을 키워나간다. 특히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율할 수 있는 능력은 정서적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는 부모나 또래집단, 이웃들과 정서적으로 얼마나 잘 통하는지, 얼마나 공감이 잘 이루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2)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 일상적인 배려와 돌봄
 - 수업 부적응 학생들의 재화에 필요한 수업 대체 돌봄 프로그램(휴식, 상담, 독서, 체험 활동 등)의 운영
- 방과후 돌봄학교 운영
 - 사회복지사, 상담교사, 커리어코치, 생활지도 담당자 등과 학부모, 사회단체, 각 분야 전문가가 함께하는 돌봄 네트워크 운영
 - 상담 · 치유 · 진로 · 사회적 복지 · 생활지도를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활동과 예술적 · 생태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종합적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멘토링, 복지 후원, 학습 지원 등을 위한 돌봄 기부 운동 전개

나. 체계적인 학생 상담서비스 제공

1) 치유·돌봄을 위한 전문적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상담사 배치를 통하여 소외 학생들에게 체계적·통합적인 상담 프로그램 제공
 - 소외된 학생들에 대한 사회복지와 성장·발달 협약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생활지도를 함께 제공

2) 방과후 돌봄학교를 통한 종합적인 상담·복지 연계 프로그램 지원

- 방과후 돌봄학교의 운영
 - 부모와 학생의 갈등문제 조정·해결 및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소외 청소년 지원 중개
 - 빈곤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복합적 문제행동의 경우 정기적 상담으로 심리적 안정 도모
 - 상담활동과 함께 교육 복지와 사회 복지의 통합 제공

다. 사회적 소외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1) 돌봄 네트워크를 통한 소외 아동 지원 체제 구축

- 진로·상담·복지·학부모·지역사회의 역할을 연계한 협의체 구성
- 상담교사,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종합적인 상담 및 학생 복지 사업 실현
- 또래 상담을 위한 학생 멘토의 양성 및 운영
- 학부모 지원단, 지역사회 지원단의 모집과 운영

2) 소외 아동을 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돌봄학교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실시
 - 장애우, 다문화 자녀, 학습부진아, 왕따, 생활 부적응아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 개개인이 소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존감과 충만감을 높여주는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 제공
 - 사회복지사, 학부모,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종합복지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학부모, 지역 대학과 연계한 방과후 도우미교사제와 멘토링 운영
- 지역사회 인프라의 활용
 - 지역내 각계 전문가(전통기술, 예능보유자 등)를 돌봄 자문단으로 위촉
 - 지역의 종교관련 봉사단체, 지역사랑 시민모임, 환경운동단체, 생활협동조합, 체육동호회 등 시민단체들과 참여·협력 관계 구축



5 학교운영

가. 협력적 학교 공동체 운영

1) 협력적 학교 운영을 위한 원칙

- 민주적인 학교
- 소통, 연대, 참여, 협력, 신뢰하는 학교

구체적 실천 방안

- 학교 관리자와 교사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교사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며, 학부모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
-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적 기능을 활성화하여 참여와 협력의 학교운영 모형 창출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풍토를 만든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가 배움과 돌봄의 공동체가 되도록 협력한다.
- 교과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동일 교과목 교사 사이의 연수와 연구 기능을 활성화한다.
- 교육과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교과목간 협력에 토대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활성화하고,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역량을 강화한다.
- 인사위, 예·결산 소위, 급식 소위 등 중요한 소위원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운영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감축한다.

2) 협력적 학교 운영을 위한 운영 체계

- 공식적 심의·의결 기구의 활성화로 민주적 학교 운영구조의 정착
 -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적 관점에서 학생 생활교육 및 교과교육, 교육과정 운영 관련 의제를 많이 다루고 교무회의와 협력적 관계를 강화
 - 교무회의에서는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위임한 교육과정이나 수업시수 등 교수·학습에 직결되는 의제 논의
- 권한 위임과 불필요한 위원회의 감축
 - 행정 중심에서 교수·학습 지원 중심으로 학교 운영체제 전환
 - 소통과 신뢰 속에 학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교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결정 권한 대폭 위임



• 민주적 의사결정 체제 구축

- 학교의 중요한 상설 위원회나 회의체는 학교 혁신을 위한 논의와 지원 기구로 역할 재정립
- 교육과정 운영권을 교육과정위원회에 부여하고, 개별 교과 운영권은 각 교과협의회에 부여
- 인사와 재정에 관련되는 인사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 급식위원회 등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나.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운영체제 구축

1) 교수·학습 중심의 업무 분장 체제 마련

• 행정 업무 경감과 교수·학습 중심의 업무 분장

- 수직적 행정업무 처리 중심에서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수평적 교과 부서 체제로 개편
- 행정업무는 교감이 총괄하며, 교무행정사가 모든 공문서 처리

2) 교무행정 인력의 확충

• 교무행정 업무 전담 인력 충원

- 공문서 처리 등 행정업무 전담 인력 채용과 배치

• 교수·학습 중심의 행사 운영

-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에 부담을 주는 전시성 행사 지양
- 교육청 주관 행사의 통폐합과 단위학교의 자율적·선택적 참여 보장
- 학교 자체 행사는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과의 연계 운영

3) 예산 편성과 지원의 혁신

• 교수·학습 활동에 필요한 모든 예산 지원

- 학습준비물비, 체험학습비, 실험실습비 확보
- 교수·학습 활동을 위한 특별실 및 관련 기자재 확보

• 행정실의 예산 집행 과정 효율화

- 교사의 구매 요청 물품에 대해 복수의 견적서 지원 (제품의 질, 판매처, 공동 구매 등 예산 절감 가격 파악 등 고려)
- 교육 기자재의 유지·보수·구매와 관련된 예산의 편성과 집행시 담당교사와 협의

• 협력적·민주적 예산 편성과 투명한 집행

- 예산 편성시 교육과정위원회나 교무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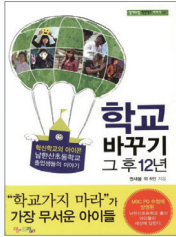
- 기본교육활동 예산은 학교 전체와 학년·교과별 예산의 비율을 조절하여 지원
- 학교 시설 공사 시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용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다.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시설 및 환경 구축

- 교수·학습에 필요한 시설 확충
- 생태환경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위한 시설 확충
- 학생 활동을 위한 공간 확충
 - 동아리 활동실, 학생회 자치실, 학생 휴게실 등 확보
- 청소 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청결한 학교 유지
 - 학생들의 청소는 가능한 최소화

학교 바꾸기 그 후 12년

권새봄 외 6인 / 맘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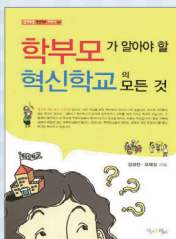


남한산초등학교의 ‘학교 바꾸기’를 시작한 이래로 12년이 지나고, 성인이 된 그들, 일곱 명의 남한산 아이들이 남한산초등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지, 그리고 졸업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에 대해 이 책을 통해 말한다.

남한산 아이들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한 소리가 있는가를, 얼마나 작은 것들이 세상을 담아내고 있는가를, 세상에 단 하루도 같은 날은 없다는 것을, 슬플 때는 울어도 된다는 것을, 부당함에는 분노해도 된다는 것을, 치열했던 놀이의 흔적이 얼마나 자랑스러운가를, 그리고 “치사하지 않게 이기는 법과 당당하게 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한다. 더불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그곳에서 배울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이 그곳에서 만든 기억들을 모두와 나누며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남한산의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전해준다.

학부모가 알아야 할 혁신학교의 모든 것

김성천, 오재길 / 맘에드림



혁신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거나 혁신학교로 진학이 예정된 학부모들 이라고 하더라도 혁신학교에 관해 잘 모르는 형편이다. ‘혁신학교’라는 이름도 낯설뿐더러 혁신학교가 사립인지, 공립인지, 대안학교인지, 입학하려면 시험을 쳐야 하는지,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 시험과 성적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수업 방식이 특별하다던데 그럼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아이들의 발달이나 성장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혁신학교 운영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학부모들은 혁신학교에 관해 매우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학부모들의 이러한 궁금함에 차근차근 답하고자 하였다. 특히 모범적인 혁신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수업, 평가, 행사, 프로그램, 학교 운영, 선생님 등을 소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김성천 / 맘에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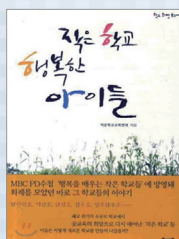
혁신학교에 대한 모든 것!

교육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우리시대 혁신학교 들여다보기 『혁신학교란 무엇인가』. 혁신학교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 공교육 안에서 혁신학교가 생기게 된 역사에서부터 혁신학교의 핵심가치, 이론적 토대, 원리와 원칙, 성공적인 혁신학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단위학교의 모습까지 담아냈다. 현재 혁신학교의 성공모델이라 불리는 서정초등학교, 조현초등학교, 덕양

중학교, 장곡중학교, 이우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의 진솔한 인터뷰는 지금 우리 교육이 변화하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확인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공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혁신학교’를 통해 느낄 수 있다.

작은 학교 행복한 아이들

작은학교교육연대 / 우리교육



폐교 위기의 소규모 학교에서 공교육의 희망으로 다시 태어난 ‘작은 학교’ 이야기.

‘작은 학교’들은 새로운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개혁을 다방면에서 시도한다. 이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관료주의의 관행에 찌든 학교 제도를 바꾸는 것이었다. 실적을 쌓기 위한 각종 대회와 행사 참여, 공문서, 전시적인 행사를 없애고 배움을 중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갔으며, 입간판, 조희대 등 권위

적인 시설물들을 걷어 내거나 주변 제도, 운동장 조희, 선발 위주의 시상 제도 등 낡은 틀과 관행을 바꿨다.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에서 체험 활동중심으로 재조직하고 중간놀이 시간을 30분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충분히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등 ‘얇’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하면서 교사와 학생 모두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 바로 서게 하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행복한 혁신학교 만들기

초등교육과정연구회 / 살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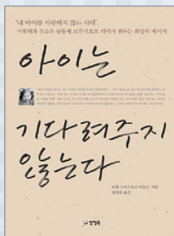


비고츠키 교육철학으로 본 혁신학교 지침서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 참교육을 하기 위해 교육과정, 교과, 학급 운영 등의 내용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모임”인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저자들은 『교과서를 믿지 마라』를 출간하여 베스트셀러로 만들 만큼 많은 학부모와 시민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교육과정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 모임이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한층 깊어진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열망, 교육에 대한 전문성,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혁신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철학과 실천 전략 연구 결과를 풀어놓고 있다.

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저, 전의우 역 / 양철북



이 책에서는 아이와 어른이 각각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지만 어른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에 주목하고 있다. 어른들은 어렸을 때 아이의 시선을 가졌지만 점점 어른이 되면서 아이의 맑은 영혼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편견, 아집, 독선, 권위, 부와 명예에 얽매어 어른의 입장으로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아이에게는 내일이 없다고 한다. 오늘의 순간순간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인 것이다. 어른들은 많은 시간을 기다려 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성장하고 배우고 있다. 어른들의 행동은 그대로 아이의 눈에 들어간다. 이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보고 아이를 위해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왜 학교는 불행한가

전성은/ 메디치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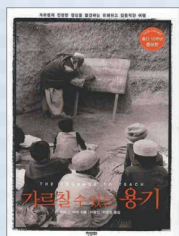
우리나라 혁신학교 혹은 행복학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거창고등학교 전(前) 교장 전성은 선생이 우리 교육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참여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아 시도하다가 여러 가지 벽에 부딪혀 끝내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 교육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는 학교의 기원과 역사, 진정한 학교의 의미, 교사와 학생이 가야할 길 등에 대해 여러 동료들과 선배들과 함께 그동안 고민하고 성찰해 온 결과들을 이 책에서 정리했다.

이 책에서 그는 학교교육의 목적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이 아니라 평화의 실현이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가와 학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국가의 필요에 의해 뽑는 ‘인재양성 교육’에 반대하며 반역사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반종교적이지 않은 ‘인격교육’을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무엇보다 대한민국 교육현실의 문제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교육열과 교사들의 낮은 헌신성과 도덕성, 잘못된 교육정책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학부모, 교사, 정부 등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과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인격과 인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학교교육의 역할과 본분을 다시 세우자고 말한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파커 J. 파머 저, 이은정, 이종인 역/ 한문화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아픔과 환희를 동시에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책. 많은 교사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교직을 선택하지만 가르치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왜’ 가르칠 것인가만 이야기했지 그것을 가르치는 ‘누구’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 이 책은 교사의 의미와 가르치는 일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책이다. 그리고 진정한 가르침의 용기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준다.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그것은 곧 나 자신에게로 달려가는 용기이다.”

조벽 교수의 수업 컨설팅

조벽 / 해냄출판사



수업컨설팅의 영역은 매우 넓다. 수업과 관련된 모든 면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인 수업컨설팅의 방법과 절차, 컨설턴트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알지 못한다. 이 책은 교수자가 컨설팅을 신청한 후부터 피드백을 다 받을 때까지 모든 절차를 포함하여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 중 수업컨설턴트를 위한 상담원칙과 교수자와 수업 컨설턴트를 이어주는 면담의 기술은 조벽 교수만의 노하우를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별칭으로 우리 교육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고 실천 전략을 전파해 온 최고의 교육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책이다.

인권

최현 / 책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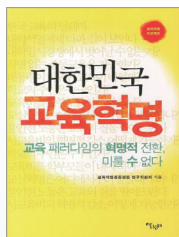


인권의 중요성과 그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뿐 아니라 그것이 역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제도적으로 발전해왔는지를 알아야 한다. 인권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의 가치를 정당화한다면, 시민권은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시민권은 국가라는 정치 기구 및 제도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된 인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시민권을 둘러싼 갈등과 논쟁 속에서 인권의 개념을 어떻게 확대해왔는지 실천적 함의는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때때로 인권은 개인이나 단체, 국가가 자신의 행동과 정책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한다. 오히려 인권을 조제 제정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인권’에 대한 많은 담론들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은 어떤 의미이고, 인권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대한민국 교육혁명

교육혁명공동행동 연구위원회 / 살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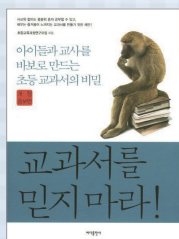
이 책은 진보교육연구소, 학벌없는사회, 전국교과모임연합 등 교육운동 진영을 대표하는 단체의 학자, 연구자, 활동가들이 오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준비한 것으로,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이론적·실천적 활동의 결과물이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이나 전면 무상교육! 한두 교사들이 모여 나눈 교육현실에 대한 고민들은 언제나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하는 의심에 머무르고 말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교육혁명>에 제시된 현실 교육에 대한 분석과 수치화된 데이터들은 ‘어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하는 가능성을 갖게 한다. 의심이 확신으로, 가능성으로 변화되어 희망을 품게 한다.

혹여 책장을 펼쳤을 때 ‘투쟁’이나 ‘혁명’ 등과 같은 어휘들에서 묻어나는 강성의 톤이 거슬리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읽으시라! 마지막 책장을 덮는 그 순간에는 교육현실 극복에 대한 가능성의 틈새로 눈부시게 강한 빛이 비춰지는 듯한 강열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교과서를 믿지마라!

초등교육과정연구모임 / 바다출판사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주요한 도구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초등학교는 국정교과서가 대다수 이므로 교과서의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중요하다. 하지만 이 책에 드러난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실제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하지?’ 혹은 ‘이 부분을 아이들은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했던 의문들과 교과서가 어려워졌다는 학부모들의 불만들은 당연한 것이다. 현장은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으로 어수선했던 새로 만들어지는 교과서의 내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분량은 여전히 많다는 흥흥(?) 얘기도 들린다.

<교과서를 믿지마라!>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이 책에는 현행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이 담겨 있다. 그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교사들의 노하우와 조언들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금발여자 경상도 남자

황선준 / 한언



‘스웨덴 교육통’으로 불리는 저자 황선준 박사는 스웨덴 교육과 한국 교육의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은 경쟁 교육, 스웨덴은 비판·창의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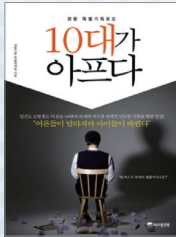
한국은 주입식 교육, 스웨덴은 토론식 수업

한국은 일방 소통, 스웨덴은 쌍방 소통

교육이 우리의 미래를 짊어질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학생으로 ‘길러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경쟁 위주의 ‘걸러내기’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한다.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교육이란 어떤 것인지를 이 책을 통하여 볼 수 있다.

10대가 아프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 / 위즈덤경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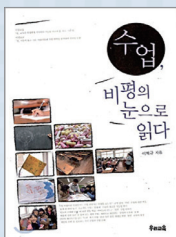


2012년 초에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의 탐사 기획 『10대가 아프다』를 담은 책. 어른들이 10대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일진도 모범생도 다 같은 10대! 끈대와 허무한 대책만 난무한 사회를 향한 일침 “어른들이 달라져야 아이들이 바뀐다” 라고 외친다.

10대는 친구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공부 때문에 아프다. “얼마나 더 아파야 괜찮아지나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박탈당한 10대들이 “세상을 향해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재!” 라고 요구한다.

수업 비평의 눈으로 읽다

이혁규 / 우리교육



수업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하는 책. 수업비평은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구성해 가는 수업현상을 하나의 분석 텍스트로 하여 수업 활동의 과학성과 예술성, 수업 참여자의 의도와 연행(連行), 교과와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수업을 기술, 분석, 해석, 평가하는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글쓰기이다. 이 책은 교사와 학생들이 배움을 매개로 하여 어떻게 만나는지에 관심을 갖게 한다. 수업을 보는 다양한 관점을 가짐으로써 좋은 수업은 과연 무엇

인지를 알려주고 있다.